



보험회사 관점의 흡연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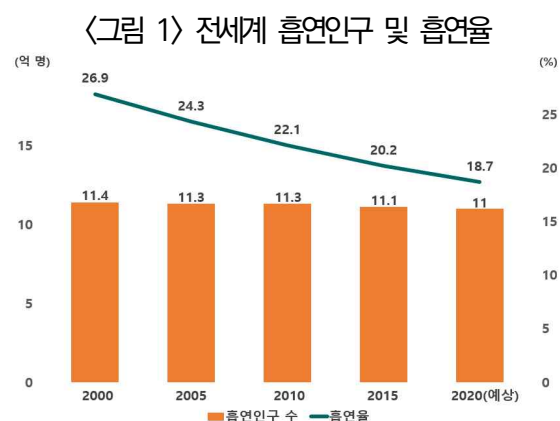
홍민지 연구원

2015년 전세계 흡연인구는 전체인구의 20.2%인 11.1억 명으로, 전체 흡연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전세계에서 매년 8백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흡연리스크는 보험회사의 계약 인수, 보험료 책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견해는 대립되고 있으며, 전자담배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 없는 보험회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전자담배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보험회사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연구

■ 2015년 전세계 흡연인구는 11.1억 명¹⁾으로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흡연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1) 및 (그림 2) 참조

- 2000년 26.9%에 달했던 흡연율은 매년 감소하여 2015년에 20.2%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18.7%일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7백만 명이었던 전자담배 사용자는 점점 증가하여 2018년에 4천 1백만 명을 기록함²⁾



주: 흡연인구 및 흡연율은 15세 이상 기준임
자료: WHO(2019), pp.11-13



자료: BBC(2019)

1) WHO(2019), "WHO global report on trends in prevalence of tobacco smoking, 2000-2025", pp. 17~19
2) BBC(2019. 9. 15), "Vaping: How popular are e-cigarettes?"

■ 전세계에서 매년 8백만 명이 흡연관련 질병³⁾으로 사망하며, 흡연리스크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 보험료 책정,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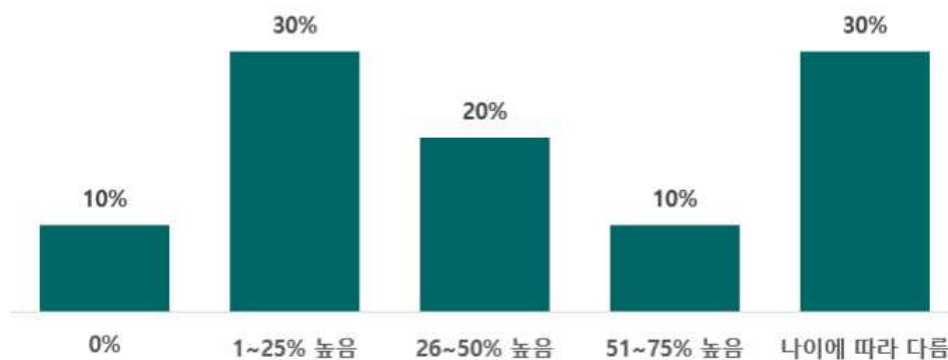
-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8백만 명 중 7백만 명은 흡연자이며, 120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임⁵⁾
- 보험회사들은 흡연자 할증요율, 금연 시 보험료 할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흡연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⁶⁾

■ 1980년대 후반 생명보험회사에서 흡연자 할증요율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 많은 국가의 생명 및 건강보험상품에서 흡연자 할증요율이 일반화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89%, 건강보험회사 42%가 개인형 보험상품에 흡연자 할증요율을 적용한다고 응답함⁷⁾
- 흡연자 할증요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1~25%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26~50%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회사는 20%를 차지함(〈그림 3〉 참조)

〈그림 3〉 생명보험회사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 요율 차등 현황

(단위: 생명보험회사 비율(%))



자료: WHO(2019)

3) 구강암, 후두암, 폐암, 만성폐질환, 천식, 결핵, 당뇨(제2형), 면역체계 약화 등이 있음

4) Marsh & McLennan(2019. 11), "Insurer perspectives on smoking risks", pp. 11~26

5) <https://www.who.int/health-topics/tobacco>(검색일: 2019. 12. 5)

6) 설문에 참여한 56개 보험회사 중 생명보험회사 40%, 건강보험회사 22%가 금연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보험회사 22%는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7) Marsh & McLennan(2019. 11), "Insurer perspectives on smoking risks", pp. 21~23

■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전자담배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 없는 보험회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국에서는 전자담배가 유연담배에 비해 안전하고 금연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⁸⁾를 토대로 금연도구로서 전자담배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⁹⁾
- 반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폐질환 및 사망자가 증가¹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 응한 생명보험회사 중 75%, 건강보험회사 중 79%가 흡연자가 이용하는 담배 종류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kiri**

8) Public health England(2015), “E-cigarettes: an evidence update”

9) BBC(2019. 6. 26) “E-cigarettes: How safe are they?”; 영국 보건청에서는 금연 희망자에게 전자담배를 무료로 처방하기도 함

10) https://www.cdc.gov/tobacco/basic_information/e-cigarettes/severe-lung-disease.html(검색일: 2019. 12. 6)